

# 주체104(2015)년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김 성 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처럼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주체104(2015)년에 뜻깊게 맞이하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ढ을 혁명적경사로 빛나게 경축하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과감한 군민협동작전으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였다.

주체104(2015)년에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정치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에 마련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것처럼 존대하고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주체104(2015)년 새해의 첫시작부터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를 하신 그길로 년초부터 해야 할 일, 가셔야 할 곳이 수없이 많으시였지만 평양애육원, 육아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을뿐아니라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관련한 단위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버섯공장을 찾으시여 건설도 불이 번쩍나게 해제겼고 생산문화도 최상의 수준에서 잘되였지만 자신께서 더욱 기쁜것은 우리 인민들의 식탁이 보다 풍성해지게 하시려고 것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관철되게 된 바로 그것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2월에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시여 올해를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평양화장품공장을 우리 나라 화장품공업의 표준, 본보기공장으로 완전히 일신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새로 만든 지하철동차를 몸소 타시고 여러 역구간을 왕복하시며 시운전과정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8월 농장이 생겨 처음보는 과일대풍을 마련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여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안겨주게 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흥할 징조이라고, 이 희한한 풍경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8월에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강냉이과자와 강냉이국수제품들의 량보다 포장용기에 드는 원가때문에 상품가격이 비싸다는것을 헤아려보시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강행군은 1월 한달동안에만도 금첩체육인종합식료공

장과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로 이어졌고 주체104(2015)년 한해동안 찾고 찾으신 인민생활과 관련한 단위들은 무려 수십여개나 된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반드시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 한해동안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 한해 불철주야 현지도강행군길에 계시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 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쑥섬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거점을 꾸릴것을 구상하시고 그 명칭을 과학기술전당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2월에는 쑥섬의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시여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척도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 없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운영준비도 동시에 밀고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원대한 구상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쑥섬에는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이 주체적건축예술의 표본으로,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원산시의 애육원, 육아원 등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는 전대미문의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데서도 알수 있다.

레년에 드문 큰물피해로 그곳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는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 하시며 그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머나먼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현지까지 나가시여 피해복구전투를 지도해주시었다. 그리고 변모된 사회주의선경마을을 보시고서는 하많은 국사도 뒤로 미루시며 라선전역의 위훈창조자들을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위대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가자고 호소하시면서 자신의 온넛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 인민을 위해 헌신하실 굳은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선언하시여 우리 인민과 전세계인류의 심장을 들뜨다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우

리 혁명무력을 무적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닥쳐온 전쟁의 위협을 막고 공화국의 존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2015년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시정책과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또 한차례의 조선전쟁이 발발될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고 평화와 안정문제를 두고 세기를 이어오며 지속되어온 조미대결전이 최절정을 이룬 한해였다.

2015년 8월 적들은 전쟁연습에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추종세력들까지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영영 없애버리려는 저들의 범죄적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였다.

《힘의 논리》에 따른 강권행사가 살판치는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탁월한 지략과 무비의 담벽으로 기세등등하게 덤벼들던 적들과의 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무전무혈의 승리를 안아온 력사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였으며 자주정치의 승리, 선군정치의 승리였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행성의 위대한 수호자, 현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2015년에 초강도제재압박으로 우리의 경제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선구분대들의 무자비한 첫 포성으로써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수 있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결국 적들은 우리의 막강한 국방력의 위력에 기절초풍하게 되였고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수 없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가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영웅적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의 본때를 만천하에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8월 혹심한 자연재해로 폐허나 다름없이 되였던 라선시의 큰 물피해복구를 인민군대가 말아 당창건 일흔돐까지 끝낼것을 명령하시고 강력한 인민군전투구분대들을 파견하시여 불과 한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인건설자들에게 당의 결심은 곧 현실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는데서 인민군대가 시대의 선구자가 되도록 힘과 용맹을 안겨주시고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 선 우리 인민군대의 승전고소리는 조국의 바다우에서도 힘있게 울려퍼졌다.

주체104(2015)년 11월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에서는 하루동안에 지난 시기 한해생산량과 맞먹는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여 이채어경이라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선경을 창조하였다.

참으로 주체104(2015)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대중시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약하는 전설같은 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된 긍지높은 한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청년중시의 정치로 이 땅위에 세상에 없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청년들을 들끓게 하여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우리 나라를 청년들의 선봉대적, 돌격대적역할에 의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부강번영하는 나라로 만드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월초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는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높이 떨치며 날에날마다 놀라운 혁신적성과들을 창조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발전소건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보도가 나가자마자 불과 열흘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한 청년들의 수는 무려 수천여명에 달하였고 성, 중앙기관,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왔으며 뒤이어 온 나라에 지원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다.

주체104(2015)년 8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언제를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청년돌격대원들은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고 완공된 발전소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다.

이 위대한 현실은 청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청년중시의 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